

2019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상품서비스세(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예정	4
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로 시장영역 확대	5
다.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6
라. 설탕세 도입 예정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2. 시장 분석	1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3
나. 수출	14
다. 투자진출	17
라. 인력진출	19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2
가. 교역	22
나. 투자	24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6

III. 진출전략 28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8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9
3.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4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7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39
첨부 3. 2019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0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2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19년 경제 소폭 하락 전망

- 싱가포르 GDP 성장률은 2018년 3.3%에서 2019년 2.6%로 하락할 전망
 - 2017년 싱가포르는 전자산업의 호조로 3.6%의 좋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전자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8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3.3%의 성장률 기록 전망
 - 중국과 미국 간 지속되는 무역 긴장감 고조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9년 경제는 2.6% 성장률에 그칠 전망

* 2017년 기준 싱가포르의 대외의존도는 216%로 한국(84%)의 약 2.5배 수준임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5.4	5.5	5.5	5.6	5.6	5.7	5.7
명목GDP	십억 달러	304.5	311.6	304.1	309.8	323.9	349.7	367.8
1인당 명목GDP	달러	56,389	56,959	54,940	55,241	57,713	61,767	64,413
실질성장률	%	5.1	3.9	2.2	2.4	3.6	2.9	2.7
실업률	%	1.9	2.0	1.9	2.1	2.2	2.1	2.1
소비자물가상승률	%	2.4	1.0	-0.5	-0.5	0.6	1.2	1.0
재정수지(GDP대비)	%	6.5	5.4	3.6	3.3	5.6	2.1	1.5
총수출	백만 달러	410,368	409,789	346,701	329,910	373,367	NA	NA
(對韓 수출)	"	16,629	16,697	14,499	14,514	16,750	NA	NA
총수입	"	373,122	366,268	296,799	283,043	327,803	NA	NA
(對韓 수입)	"	24,051	21,602	18,192	17,003	16,173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37,246	43,521	49,902	46,867	45,564	NA	NA
경상수지	"	62,940	73,738	77,668	81,297	84,221	NA	NA
환율(연평균)	S\$/US\$	0.80	0.79	0.73	0.72	0.72	NA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443	6,509	7,185	7,835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9,052	11,123	12,671	13,595	NA	NA	NA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IMF, GTA,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싱가포르 통화청(MAS)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대내적으로는 헬스케어, 인프라 개발 등 내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증가에 대비 GST를 인상할 예정이며, 당뇨병 퇴치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고려 중
- 대외적으로는 CPTTP,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 2019년도 안에 발효·협상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시장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가. 상품서비스세(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예정

□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인상 예정

- 2021~2025년 사이에 2%p 인상 예정
 - 싱가포르 Heng Swee Keat 재무부 장관은 2018/2019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2021~2025년 사이에 부가가치세 성격의 상품서비스세(GST)를 현 7%에서 9%로 2%p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정확한 시기는 싱가포르의 경제상황, 향후 지출증가 동향, 세금부양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라 전함

□ 과세대상 확대 예정

- 수입된 서비스(imported service)에도 과세
 -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컨설팅·마케팅 서비스, 앱·음악 다운로드 등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GST가 부과될 예정

□ 정부지출 증가 전망에 대비

- 이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출에 대비하기 위함임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싱가포르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은 2011년 39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18년 102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연지출이 36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향후 5년간 종합 및 지역병원 6개와 외래진료소 4개 그리고 양로원 및 노인전문센터 등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임
 - 싱가포르 정부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출은 2011년 85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18년 200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함. 향후 10년간 철도 네트워크 100km 이상 확대, 지역 재개발, 낡은 인프라 교체, 창이공항 제5터미널 개발, Tuas 항구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로 시장영역 확대

□ 싱가포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

- 미국 제외하고 진행되는 CPTPP
 - 기존 TPP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 무역장벽 철폐 및 지역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5일 타결되었으며, 관세, 수출입 규제 철폐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노동법, 환경보호, 분쟁처리, 정부조달사업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면서 차세대 무역협정으로 주목을 받았음
 - 이후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5년 반 만에 타결됐던 TPP가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2017년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TPP 발효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11개국은 협정명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하고 2018년 1월 일본 도쿄에서 합의 완료 및 2018년 3월 칠레에서 최종 서명함
- CPTPP, 2018년 12월 30일 발효
 - 싱가포르는 2018년 7월 19일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CPTPP를 비준함
 - CPTPP 2018년 12월 30일부터 베트남을 제외한 6개국에서 발효함. 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 발효 예정
 - 싱가포르 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MTI) 장관은 CPTPP를 '싱가포르의 기존 양자 간 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중요한 협정'이라 설명하였고, CPTPP를 통해 싱가포르의 경제 및 수출이 2035년까지 0.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함
 - CPTPP는 11개 참여국 중 6개국이 비준 시 60일 후 발효되게 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2019년 내 합의 완료 전망

-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후 6년 만에 협상 완료 조짐 보여
 - 2018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 회담 및 RCEP 장관 회담 후 리센룽 총리는 “RCEP 협상은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드디어 RCEP 협상 완료 조짐이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RCEP 참여국들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건설적인 참여와 최대한의 유연성을 통해 올해 안에 양질의 RCEP 협정을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함
 - 탈퇴의 우려를 보였던 인도는 해당 회담에서 진행된 협상에 만족하며 참여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나 인도 Suresh Prabhu 상무부 장관이 “RCEP 협상은 2019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2018년 말까지 협상 완료를 희망한 싱가포르의 기대와 달리 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임

다.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 말레이시아 Mahathir Mohamad 총리

- 2018년 5월부터 새로 취임한 말레이시아 Mahathir Mohamad 총리는 싱-말 고속철 프로젝트 철회, 싱-말 물 협정 가격인상 등을 원한다고 밝혀 싱가포르와 마찰을 겪고 있음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HSR) 프로젝트 연기

- 최대 2020년 5월 31일까지 프로젝트 개시 연기
 - 2018년 9월 5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싱-말 고속철 프로젝트 연기 합의서에 서명함. 말레이시아 Mahathir 총리가 프로젝트 철회를 원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으나, 그럴 경우 지불해야 하는 페널티 문제로 철회가 아닌 연기를 요청함
 - 해당 합의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최대 2020년 5월 31일까지 프로젝트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합의된 시점까지 프로젝트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싱가포르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함
 - 이에 진행 중이던 입찰건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해당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개발 계획안이 변경될지 예의 주시 필요
 - 2020년 5월 내에 프로젝트가 재개될 경우 빠르면 2031년부터 열차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 2016년 12월 13일 협약이 체결된 싱-말 고속철 프로젝트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육로로 기존 5~7시간 소요되는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간 이동시간을 90분으로 단축시켜 양국 간 경제적·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의 물 협정 가격인상 원해

- 말레이시아 Mahathir 총리,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가격인상 필요 주장
 - 1962년에 체결된 물 협정(1962 Water Agreement)에 의거, 싱가포르는 현재 말레이시아로부터 원수(raw water) 1,000갤런을 수입하는 데 약 1싱가포르달러를 지불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으며 10배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1987년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물 가격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물 협정 가격이 인상될 경우 싱가포르 내 기업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 예의주시 필요
 - *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수(imported water)는 싱가포르 수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물 협정이 2061년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라. 설탕세 도입 예정

□ 설탕세(sugar tax) 도입방안 고려 중

- 포장음료 규제 조치 도입 고려 중
 - 싱가포르 Gan Kim Yong 보건부 장관은 2018년 6월 19일 포장음료(packaged drinks)에 설탕세 부과, 포장음료 광고 제한, 설탕 또는 영양성분 관련 제품 라벨 규정 개정 등의 규제 조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함
- 설탕 고함량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 또는 판매 제한 고려
 -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건강증진위원회(Health Promotion Board)는 2018년 12월 5일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설탕의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설탕 고함량 음료에 대한 4가지 제안을 발표함
 - 1) 포장된(Pre-packaged) 설탕 고함량 음료에 대한 판매 전면 금지
 - 2) 설탕 고함량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 3) 포장 용기에 설탕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
 - 4) 설탕 고함량 음료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고 금지

□ 설탕세 도입 배경

- ‘당뇨병과의 전쟁’ 선포한 싱가포르
 -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2017년 8월 ‘National Day Rally’ 연설에서 싱가포르인 9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며 심각성을 알린 바 있음
 -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현재 40만 명 이상의 싱가포르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당뇨병 환자 수가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렇게 될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현재 연 10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50년에는 연 25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싱가포르인들의 전체 설탕 섭취 중 약 60%가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조치를 도입하고자 함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설탕 규제

- 설탕 함유량 평가
 - 싱가포르 보건부와 교육부(MOE)는 싱가포르 학교 내에서 설탕 함유량이 6% 미만인 음료만 판매를 허용함
 -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정부 관련 시설 내 자판기, 상점, 식음시설, 탕비실 등에서 물, ‘Healthier Choice Symbol’* 부착 음료 및 ‘Healthier Choice Symbol’ 가이드라인 준수 음료 제품만 취급 가능하게 함

- 싱가포르 전체 음료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Coca-Cola, F&N Foods, Malaysia Dairy Industries, Nestlé, PepsiCo, Pokka, Yeo Hiap Seng 등 7개사는 202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12% 이하로 낮추기로 자발적으로 약속함
- * 'Healthier Choice Symbol'은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더욱 건강한 식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싱가포르 건강 진흥청(HPB)에서 2001년 도입한 인증임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싱가포르의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금융허브이자 물류허브로 성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2018년 2.5%, 2019년 2.7% 성장 전망). 특히 2019년에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아세안 내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함

가. 정치 환경

□ 매우 높은 정치적 안정성 보이는 싱가포르

- 50년 넘게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 2015년 총선에서도 인민행동당이 69.9%로 대승을 거두며 집권체제 이어감
 - 싱가포르 국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체제를 구축한 여당에 대한 믿음이 강함
 - 2017년 9월 진행된 대선에서도 인민행동당 소속의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04년부터 총리직을 맡아온 리셴룽 총리는 이번 임기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고 은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내각 구성원을 젊은 각료들로 서서히 교체해가는 등 점진적인 권력이양이 진행됨에 따라 싱가포르의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될 전망
 - * 국제투명성기구(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세계 6위(한국: 세계 51위)
 - * 다음 총선은 2021년 4월에 치러질 예정

나. 경제 환경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2018년 경제성장률 2.5~3.5% 전망

- 제조업 호조로 안정적 성장세 이어가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경제는 2017년 반도체 및 반도체 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로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18년에도 제조업이 좋은 성장률을 보이며 싱가포르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나 하반기에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 산업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상품제조산업	3.2	4.7	3.5	12.2	2.7	5.7	7.1	7.1
제조업	1.7	8.5	8.4	19.1	4.8	10.1	10.8	10.2
건설업	1.9	-6.9	-12.2	-9.3	-5.0	-8.4	-5.2	-4.6
서비스산업	1.4	1.5	2.6	3.5	3.5	2.8	4.0	2.8
도소매업	1.0	0.5	2.2	3.3	3.0	2.3	2.5	1.5
운송저장업	1.3	4.7	3.9	5.2	5.3	4.8	2.7	1.3
숙박요식업	3.8	-0.3	1.0	1.3	2.9	1.2	2.0	4.0
정보통신업	3.6	1.6	0.8	5.1	6.0	3.3	5.4	5.2
금융보험업	1.6	0.6	5.0	7.1	6.3	4.8	9.2	6.7
비즈니스서비스업	-0.3	1.3	0.4	0.5	0.4	0.6	2.6	2.1
기타서비스업	3.5	2.4	3.3	2.0	2.7	2.6	2.3	0.7
전체	2.4	2.5	2.8	5.5	3.6	3.6	4.5	3.9

자료원: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다. 산업 환경

□ 금융산업

- 정부의 전략적 금융산업 육성정책으로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발전
 -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제도,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우수 금융기업 유치 및 금융허브로 발전
 - 스마트 금융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샌드박스(sand box) 도입, 핀테크 전담조직 설립, FinTech Festival 개최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 Z/Yen,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세계 4위(서울: 세계 27위)
 - * Singapore FinTech Festival: 2018년 11월 12~16일 개최 예정(주최: 싱가포르 통화청)

□ 물류산업

-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일찍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물류산업 발달
 - 싱가포르는 총 123개국, 600개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 최대 환적항임
 - 국제해사기구(IMO)는 싱가포르·말라카 해협 내 선박 이동량이 2030년까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교통관리 및 선박지원, 선원 교육, 자동화 추진

- 등에 대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국 간 지속적인 협력강화가 필요할 것이라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는 항구 확장, 신기술 도입 등 항만 인프라 개발에 지속 투자 중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초대형 규모로 개발 중인 Tuas Terminal 관련 2018년 4월 네덜란드 Boskalis사, 일본 Penta-Ocean Construction사,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과 14.6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개발 2단계에 돌입함
 - 싱가포르 항만운영사 PSA는 2017년 8월 IBM 및 Pacific International Lines사와 MOU를 체결하여 중국 충칭에서 싱가포르까지 블록체인 기반 서플라이체인 운영 시험에 성공함. 이후 블록체인 등 IT 기술 도입을 통한 물류 및 항만운영 효율성 개선이 지속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90개국, 380여개 도시를 잇는 항공허브로 현재 4개 터미널을 운영 중임. 아세안 단일 항공시장 도입으로 예상되는 수요증대에 대비해 2017년 제4터미널 오픈, 2025년까지 제5터미널 개발 등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8」 세계 7위(서울: 세계 25위)
- * Skyrax, 「World Airport Awards 2018」 창이공항 세계 1위(인천공항: 세계 2위)
- * Menon, 「The Leading Maritime Capitals of the World 2017」 세계 1위(부산항: 세계 13위)

라. 정책·규제 환경

□ 지속가능성 정책 도입 활발

- 자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및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 위한 정책 도입
 - 2014년 말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전략안인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계획(Sustainable Singapore Blueprint 2015, SSB 2015)’이 발표됨
 - 싱가포르는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에 의거, 온실가스 방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36% 감축시켜야 함
 - 이에 싱가포르는 탄소세 도입, 에너지 보존법 강화, 수도세 인상, 포장폐기물 감축 등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정책 신규 도입 및 강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탄소세는 2019년 도입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탄소 배출량 1톤당 5싱가포르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2023년 검토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1톤당 10~2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산업변환정책(Industry Transformation Map)

- 산업을 넘어 산업군(cluster) 변환정책 모색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45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산업변환정책(ITM)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음
 - 싱가포르 GDP의 80%를 차지하는 23개 산업에 대해 정부·산업·기업 차원의 혁신, 생산성 개선, 인력개발 등의 산업발전 전략안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2년에 걸쳐 마무리함

- 이후 2018년 4월 싱가포르 Heng Swee Keat 재무부 장관은 산업변환정책의 다음 단계로 23개 산업을 6개 산업군(cluster)으로 묶어 각 산업군 내에서 협력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혁신 촉진, 역량 강화, 파트너십 장려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산업군 변환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전함
- * 6개 산업군 및 23개 산업: (Manufacturing) 정밀공학, 에너지&화학, 조선해양, 우주공학, 전기전자, (Built Environment) 건설, 부동산, 보안, 환경서비스, (Trade & Connectivity) 무역, 육상운수, 해상운수, 항공운수, 물류, (Essential Domestic Services) 헬스케어, 교육, (Modern Services) 전문서비스, 금융서비스, ICT&미디어, (Lifestyle) 식품제조, 요식, 숙박, 유통

□ 무역협정 체결현황

- 총 22개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양자간 13개, 다자간 9개)
 - 2018년 9월 기준 현재 타결됐으나 발효 전 단계에 있는 협정은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싱-유럽연합(EUSFTA)** 등 2개임
 - 현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인도(서비스&투자), 아세안-일본(서비스&투자), 싱-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싱-태평양동맹 FTA 등 5개 협상 진행 중
 - * 미국의 TPP 탈퇴 선언 후 11개국은 협정 명칭을 기존 TPP에서 CPTPP로 변경 후 2018년 1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합의 완료 및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서명함. 싱가포르는 2018년 7월 19일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CPTPP를 비준함
 - ** EUSFTA는 2014년 협상이 완료되었으나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비준권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발효가 지연되고 있었음. 이후 2017년 5월 유럽 재판소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각 국가를 대표하여 EUSFTA를 비준할 수 없고 EU 내 38개 국가 및 지역당국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모두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최종 발효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싱가포르 정부는 EUSFTA가 2009년 협상이 중단된 ASEAN-EU FTA 진행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2. 시장 분석

- 싱가포르의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시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
- 한국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싱가포르 진출 자체는 쉽지만 그 만큼 경쟁이 심한 특징이 있음.
- 싱가포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전략, 현지 파트너 모색, 철저한 진출비용 분석 등이 필수적임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 개방형 경제
 -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함. 주류, 담배제품, 자동차 및 석유제품 외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글로벌 우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
 -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세계 2위(한국: 세계 4위)
- 낮은 문화적 진입장벽
 -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및 기타(3.2%)로 구성됨.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불교(33.3%), 기독교(18.3%), 무교(17.0%), 이슬람교(14.7%), 도교(10.9%), 힌두교(5.1%) 및 기타(0.7%)로 다양한 형태임
 -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30%(영주권자 포함할 경우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될 정도로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문화적 진입장벽이 낮음
 -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음

나. 수출

□ 싱가포르 수입동향

- 2017년 싱가포르 수입시장, 4년간의 하락세 끝내고 15.8% 성장
 -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하락 장기화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싱가포르의 전체 수입규모는 2017년 15.8%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
 - 싱가포르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은 2017년 기준 13.8%이며 그 뒤로 말레이시아(11.9%), 미국(10.5%) 순임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지속 하락추세로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비중은 2016년 6.0%에서 2017년 4.9%로 1.1%p 감소함. 이는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수출이 전자직접회로(8542), 석유와 역청유(2710) 등 몇 개 품목에 크게 치우쳐져 있어 해당 품목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의 2018년 1~6월 누계 수입규모는 1,7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상승함. 연초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 국가별 수입동향(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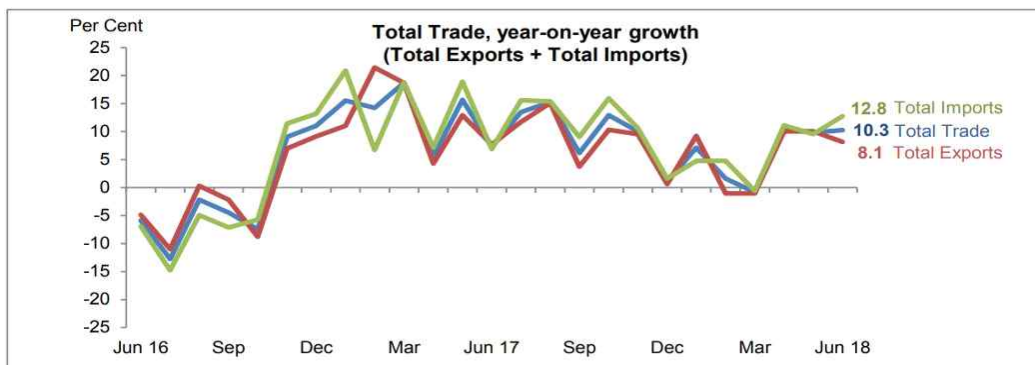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42,112	-5.1	40,386	-4.1	45,366	12.3	24,536	14.0
2	말레이시아	33,062	-15.3	32,261	-2.4	38,867	20.5	21,071	13.3
3	미국	33,198	-12.0	30,551	-8.0	34,469	12.8	19,879	16.9
4	대만	24,673	-17.8	23,300	-5.6	27,168	16.6	14,601	17.7
5	일본	18,593	-7.5	19,902	7.0	20,479	2.9	11,029	9.7
6	한국	18,192	-15.8	17,003	-6.5	16,173	-4.9	6,746	-14.4
-	전체	296,799	-19.0	283,043	-4.6	327,803	15.8	177,245	13.2

주: *는 2018년 1~6월 누계 기준

자료원: GTA

[싱가포르 수출입 동향]



자료원: Enterprise Singapore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동향

- 전체 對싱가포르 수출의 81.4% 차지하는 상위 5개 수출품목
 -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상위 5개 수출품목은 전자직접회로(63.0%), 석유와 역청유(15.4%), 반도체 제조기기(1.4%), 화장품(0.9%), 기계 부분·부속품(0.9%) 등으로 특히 전자직접회로와 석유와 역청유의 비중이 매우 큼
 -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60%의 좋은 성장률을 보인 화장품(3304)이 2017년 새롭게 상위 5개 품목에 포함됨
 -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은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임

[對싱가포르 상위 5개 수출품목 및 경쟁동향(2017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1	8542	전자직접회로	1	대만	18,447 (34.8)	17,038 (31.9)	20,406 (34.4)	11,188 (37.1)
			2	한국	10,500 (19.8)	10,995 (20.6)	10,185 (17.2)	3,554 (11.8)
			3	말레이시아	6,530 (12.3)	6,787 (12.7)	9,183 (15.5)	4,743 (15.7)
2	2710	석유와 역청유 (원유 외)	1	말레이시아	5,960 (14.0)	5,545 (16.8)	8,158 (17.5)	4,615 (17.7)
			2	중국	3,503 (8.2)	3,710 (11.2)	4,829 (10.3)	3,852 (14.8)
			3	인도	2,951 (6.9)	2,840 (8.6)	4,134 (8.9)	1,658 (6.4)
			5	한국	3,927 (9.2)	2,516 (7.6)	2,485 (5.3)	1,230 (4.7)
3	8486	반도체 제조기기	1	미국	1,006 (39.1)	1,706 (39.7)	1,516 (34.4)	1,042 (37.1)
			2	일본	491 (19.1)	945 (22.0)	847 (19.2)	596 (21.2)
			3	말레이시아	248 (9.6)	373 (8.7)	641 (14.5)	371 (13.2)
			5	한국	133 (5.2)	142 (3.3)	222 (5.0)	103 (3.7)
4	3304	화장품	1	프랑스	570 (40.2)	678 (39.6)	865 (39.9)	541 (38.5)
			2	미국	224 (15.8)	258 (15.0)	300 (13.8)	224 (15.9)
			3	일본	145 (10.2)	187 (10.9)	232 (10.7)	176 (12.5)
			4	한국	56 (4.0)	107 (6.2)	142 (6.6)	101 (7.2)
5	8473	기계 부속·부분품	1	중국	2,097 (43.1)	1,814 (41.1)	2,383 (47.5)	1,106 (46.0)
			2	말레이시아	922 (18.9)	898 (20.3)	904 (18.0)	517 (21.5)
			3	미국	406 (8.3)	320 (7.2)	317 (6.3)	126 (5.2)
			7	한국	113 (2.3)	92 (2.1)	139 (2.8)	92 (3.8)

주: *는 2018년 1~6월 누계 기준, ()는 시장점유율

자료원: GTA

□ 진입장벽

- 싱가포르의 개방경제를 지향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음
 - 싱가포르는 차량, 담배, 석유, 주류제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 기준 도입, 투명한 행정,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애로사항도 없는 편임
 -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해 있어 경쟁이 치열함

□ 우리 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사례)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전략으로 현지 바이어를 사로잡은 N사
 -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OEM/ODM의 형식으로 생산하는 N사는 2016년도부터 주요 전문 전시회 참가 및 싱가포르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병행 중임
 - 싱가포르 건강기능식품 전시회(VitaFood)에 꾸준한 참가를 통해 현지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F사 및 A사와 각각 파트너십을 맺어 각 바이어의 니즈에 따라 콜라겐 음료를 기획·개발·생산하여 2018년 초 수출성약 성공
 - 수출성약 이후에도 제품 판매현황, 소비자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며 바이어에게 신제품 제안, 싱가포르 매장 직원용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전략을 구사하며 바이어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
- (실패사례) 바이어와 신뢰 형성 실패가 장기 수출 실패로 연결된 C사
 - 티 포션을 유통하는 C사는 싱가포르 바이어와 첫 미팅에서 제품의 품질과 패키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을 받고 수출계약 체결 성공
 - 그러나 계약 이후 시장 테스트를 위해 첫 번째 소량 수출물량을 받은 바이어는 가장 기본적인 영문 라벨이 미비하다는 점과 한국 내 대형마트 소비자 가격보다 수입단가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앞으로의 거래의사 철회
 - 수출물량을 떠나 바이어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바이어의 요구사항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 중요

다. 투자진출

□ 싱가포르 투자진출 동향

- 지속 증가하고 있는 對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FDI)
 - 2016년 기준 FDI 유입규모는 1조 3,595억 싱가포르달러로 지난 3년간 연평균 14.7%씩 크게 증가함
 - 동남아시아 금융허브인 만큼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약 49.6%로 가장 크고 그 뒤로 도소매업(21.9%), 제조업(12.5%) 순의 비중을 보임

[싱가포르 주요 산업별 FDI 현황]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159,660	17.6	157,037	14.1	167,012	13.2	169,875	12.5
건설업	3,447	0.4	3,945	0.4	3,541	0.3	4,374	0.3
도소매업	186,395	20.6	236,611	21.3	281,616	22.2	298,012	21.9
숙박요식업	3,966	0.4	5,239	0.5	6,291	0.5	6,473	0.5
운송저장업	32,908	3.6	37,984	3.4	40,482	3.2	28,473	2.1
정보통신업	12,516	1.4	18,622	1.7	20,885	1.6	18,390	1.4
금융보험업	411,263	45.4	525,684	47.3	591,755	46.7	674,706	49.6
부동산업	31,246	3.5	36,986	3.3	34,151	2.7	37,734	2.8
기타 서비스업	53,655	5.9	76,865	6.9	106,095	8.4	105,696	7.8
기타	10,168	1.1	13,352	1.2	15,278	1.2	15,744	1.2
총계	905,224	100.0	1,112,325	100.0	1,267,105	100.0	1,359,477	100.0

주: 2018년 9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규모는 2017년 투자금액 누적 기준 101억 달러이며, 전체 투자진출국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對싱가포르 FDI 현황]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25	31	456	155	263
2017	333	100	1,421	500	1,021
2016	261	70	1,420	394	1,175
2015	237	69	2,107	368	1,458
2014	224	58	904	344	980
2013	209	47	831	263	553
총계(1968~2017)	3,054	933	12,714	3,957	10,077

주: *는 2018년 1~3월 누계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2016년 기준 미국이 2,796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높은 비중(30.9%)을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1.5%로 싱가포르 투자국 중 23위임

[싱가포르 국가별 FDI 현황]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129,928	14.4	192,312	21.2	242,937	26.8	279,577	30.9
2	영국령 버진제도	87,451	9.7	105,903	11.7	109,811	12.1	118,725	13.1
3	케이맨제도	59,608	6.6	80,917	8.9	97,935	10.8	106,456	11.8
4	네덜란드	84,902	9.4	70,063	7.7	99,126	11.0	102,125	11.3
5	일본	72,246	8.0	110,106	12.2	115,247	12.7	93,985	10.4
9	홍콩	33,490	3.7	50,123	5.5	48,713	5.4	52,767	5.8
13	중국	17,846	2.0	16,195	1.8	22,689	2.5	24,498	2.7
18	대만	8,434	0.9	12,383	1.4	14,553	1.6	16,438	1.8
23	한국	4,681	0.5	7,576	0.8	10,781	1.2	13,920	1.5

주: 2018년 9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싱가포르는 정부의 강한 투자유치 의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진출했을 때 겪는 애로사항은 많지 않음
 - 영어 공용화, 투명한 행정, 정치적 안정성, 간단한 조세체계, 선진화된 인프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바탕으로 세계은행 발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로 꼽힘
 - 다만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력 제한정책으로 인해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요식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관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 기업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사례) 싱가포르 정부지원을 적극 활용한 A사
 - 진출 당시부터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가 과학연구기관인 A*STAR 산하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해 아세안 시장에 맞는 연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싱가포르와 연결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에 공장 건립 중
- (실패사례) 현지 노동비자 관련 문제로 철수한 C사
 - 싱가포르 현지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C사는 현지 노동비자 관련 문제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싱가포르의 높은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워져 4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폐점하고 싱가포르 시장에서 철수함

라. 인력진출

□ 싱가포르 노동시장 동향

- 싱가포르 총 노동인력,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 싱가포르 노동부에 의하면 2017년 싱가포르의 총 노동인력은 366만 9,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700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2003년(-1만 2,900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임
 - 현지인력은 2만 1,300명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력은 3만 2,000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설 및 해양산업 Work Permit(WP) 소지 근로자가 크게 줄
- 서비스 분야, 지속적인 고용기회 창출 전망
 - 내수경제의 지속적인 확장에 힘입어 정보통신 및 미디어, 금융 및 보험, 건강관리, 전문 서비스, 물류 및 도매 무역 등에서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최근 8년간 인력 증감현황]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산업 합계	115.9	122.6	129.1	136.2	130.1	32.3	16.8	-3.6
제조업(총계)	-0.8	3.4	11.4	5.3	-4.4	-22.1	-15.5	-11.3
- 현지인	-0.1	-0.28	2.1	0.9	1.1	-7.3	-6.8	-1.7
- 외국인	-0.7	6.1	9.4	4.4	-5.4	-14.8	-8.7	-9.6
건설업(총계)	3.4	22	39.1	35.2	14.3	8.6	-11.5	-38.3
- 현지인	-0.4	2.4	4.2	3.7	4.6	1.8	-1.4	-5.7
- 외국인	3.8	19.6	34.9	31.6	9.7	6.8	-10.1	-32.6
서비스업(총계)	112.6	96.1	77.0	94.1	119.7	45.5	44.2	46.4
- 현지인	56.3	37.5	51.0	77.1	90.1	6.0	19.8	29.3
- 외국인	56.2	58.6	26.1	17.0	29.5	39.6	24.4	17.1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 「Labour Market Report 2017」

□ 우리 청년 해외취업 동향

-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고용제한정책 강화에 따라 2017년 한국 정부지원 해외취업자 수는 2016년 대비 27.1% 감소한 505명으로 집계됨

[최근 5년 싱가포르 내 한인 청년 해외취업 현황]

(단위: 명)

취업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취업자수	116	249	364	642	505

자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력진출 진입장벽

- 싱가포르의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을 강화함
 - EP 비자가 나오는 고기술·임금 직종(PMETs) 직군에 대해 싱가포르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채용 시 요건을 강화함
 - SP 비자 발급 최소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민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서비스직군의 경우 후진국 인력대상 WP 비자 발급기간을 확대함

【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

Employment Pass (EP)	대상	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기술 보유 근로자
	최소급여	월 3,600싱가포르달러
	유효기간	최초 신청 시 2년, 갱신 시 3년
	특이사항	자국민 대상 Jobs Bank 채용공고 기준 변경(2018년 7월부) - 근로자 26명 → 10명 이상 기업 - 월 1만 2,000싱가포르달러 → 1만 5,000싱가포르달러 미만 지급 채용건
S Pass (SP)	대상	대학 학사 또는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 기술자격증 소지자
	최소급여	월 2,200싱가포르달러 → 2,300싱가포르달러(2019년) → 2,400싱가포르달러(2020년) 인상 예정
	유효기간	2년(갱신 가능)
	특이사항	해외인력 고용 할당(quota) 및 고용부담금(levy) 있음
Work Permit (WP)	대상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최소급여	조건 없음
	유효기간	2년(중국·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스리랑카·태국인 최대 4년으로 확대)
	특이사항	해외인력 고용 할당 및 고용부담금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

- 싱가포르는 3대 취업비자(EP, SP, WP) 외, 인턴비자 및 워킹비자가 있으나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아 한인 청년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인턴비자 발급가능 기준이 한국은 11개 대학으로 제한되며, 그 외 최소 월 3,000싱가포르달러 이상 받을 시 비자 발급이 가능하여 진입하기 어려움
 - 워킹비자는 싱가포르 정부가 정한 9개국 소재 대학의 재학생·졸업생만 신청 가능하여 국내 대학 소재 학생의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함

【 인턴·워킹비자 종류 및 특징 】

Training Employment Pass (인턴비자)	대상	싱가포르 정부 지정 전 세계 200개 대학 학생
	가능학교	한국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11개 대학
	최소급여	월 3,000싱가포르달러
	유효기간	3개월(갱신 불가)
	특이사항	인턴비자 수료 시 동종 인턴비자 지원 불가
Work Holiday Programme (워킹비자)	대상	싱가포르 지정 9개국 대학교 재학생·졸업생(18~25세)
	대상국가	호주,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 9개국
	최소급여	급여 제한 없음
	유효기간	6개월(1년 뒤 재신청 가능) / 호주는 12개월
	특이사항	- 워킹비자는 최대 2,000명 한도 내 비자 발급이 가능함 - 호주는 양자협정상 500명 한도 내 12개월 체류비자 발급 가능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

□ 시사점

- 싱가포르 노동시장에서 한국인에 대한 수요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거래가 활발한 기업들로 주로 고객서비스, 회계, 영업 및 마케팅 등 서비스 직종에서 발생함
 -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기술영업직 또는 서비스직과 연간 1,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수혜를 입고 있는 호텔·요식업 서비스직에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있음
- 한국인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관심이 있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영어 사용이 가능한 구직자라면 싱가포르는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시장임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제협약

가. 교역

□ FTA 체결 현황

- 한·싱 자유무역협정(KSFTA)은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은 2007년 6월 발효됨

□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6대 수입국이자 7대 수출국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수입시장에서 4.9%, 수출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입					수출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1	중국	42,112 (14.2)	40,386 (14.3)	45,366 (13.9)	1	중국	47,709 (13.8)	42,839 (13.0)	54,067 (14.5)
2	말레이시아	33,062 (11.1)	32,261 (11.4)	38,867 (11.9)	2	홍콩	39,666 (11.4)	41,618 (12.6)	46,039 (12.3)
3	미국	24,673 (11.2)	30,551 (10.8)	34,469 (10.5)	3	말레이시아	37,770 (10.9)	35,010 (10.6)	39,629 (10.6)
4	대만	18,593 (8.3)	23,300 (8.2)	27,168 (8.3)	4	인도네시아	28,367 (8.2)	25,787 (7.8)	27,962 (7.5)
5	일본	18,192 (6.3)	19,902 (7.0)	20,479 (6.3)	5	미국	21,708 (6.3)	21,505 (6.5)	23,464 (6.3)
6	한국	14,379 (6.1)	17,003 (6.0)	16,173 (4.9)	6	일본	15,219 (4.4)	14,568 (4.4)	17,064 (4.6)
7	인도네시아	8,950 (4.8)	13,468 (4.8)	15,139 (4.6)	7	한국	14,499 (4.2)	14,514 (4.4)	16,750 (4.5)
8	독일	7,941 (3.0)	8,693 (3.1)	9,495 (2.9)	8	대만	14,446 (4.2)	14,731 (4.5)	16,594 (4.4)
9	사우디아라비아	3,745 (2.7)	8,113 (2.9)	9,160 (2.8)	9	태국	13,764 (4.0)	12,989 (3.9)	14,684 (3.9)
10	스위스	7,294 (1.3)	3,821 (1.4)	9,127 (2.8)	10	베트남	12,127 (3.5)	11,355 (3.4)	12,291 (3.3)
-	전체	296,799 (100.0)	283,043 (100.0)	327,803 (100.0)	-	전체	346,701 (100.0)	329,910 (100.0)	373,367 (100.0)

주: ()는 시장점유율

자료원: GTA

□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수출유망 품목

- 차별화된 재료와 프리미엄화로 시장 확보에 나선 한국 간편 이유식
 - 싱가포르의 對한국 유아식 수입규모는 2015년 36만 달러에서 2017년 48만 달러로 지난 3년 평균 19.10%의 증가율을 보임
 - 소비자들의 건강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홈메이드(Home-made) 형태의 쌀과 영양가 높은 재료가 혼합된 프리미엄 유아식을 찾는 싱가포르 소비자들 증가
 - 품질 외에도 휴대성이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포장형태의 제품 선호도가 높음
 - * 현재 유통채널 M사에 따르면 Bebecook, Avertto, Bokumjari 등의 한국 제품들은 휴대하기 쉬운 파우치 형태이면서 뚜껑을 여닫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음
 - 영유아 이유식 전체 시장에서 오프라인 채널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최근 진출한 국내제품의 경우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 * 싱가포르 대표 식료품 전문 온라인몰 RedMart에도 한국 브랜드 Bebecook, Evertto 등이 입점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싱가포르의 對한국 유아식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HS코드	품목	순위	국가	수입규모 및 성장률		
				2015	2016	2017
2104	유아식	11	한국	367 (28.32)	415 (13.08)	481 (15.90)

자료원: GTA

-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에 따른 관련 제품 수요 증가 기대
 - 싱가포르는 금융, 항공, 해양산업 분야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한 비즈니스 허브로서 견고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요구되는 국가임
 - 최근 싱가포르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발발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내 공공·민간 전 분야에 걸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어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 싱가포르 최대 의료기관 SingHealth에서 약 150만 명의 개인의료기록 해킹 사건(2018년 7월), 싱가포르 국방부 소속인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7년 2월) 등 발생
 - 2017년도 사이버 보안 솔루션 관련 제품(HS코드 8523)에 대한 싱가포르의 전체 수입액이 전년 대비 60%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출 또한 55% 이상 증가함
 -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쌓아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및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나. 투자

□ 우리나라 투자진출 현황

-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등에 꾸준히 투자함
 - 2017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33.5%), 제조업(19.8%), 도매 및 소매업(13.5%) 순의 비중을 보임

【 싱가포르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 】

(단위: 개, 천 달러, %)

업종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농업, 임업 및 어업	0	2	0	0 (0.0)	222 (0.0)	3,512 (0.3)
광업	2	2	0	720,613 (49.4)	68,236 (5.8)	0 (0.0)
제조업	12	7	9	77,211 (5.3)	83,566 (7.1)	202,294 (19.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1	40,264 (2.8)	29,224 (2.5)	15,301 (1.5)
건설업	0	1	5	6,039 (0.4)	124,115 (10.6)	10,388 (1.0)
도매 및 소매업	19	16	19	330,330 (22.7)	375,319 (31.9)	138,198 (13.5)
운수 및 창고업	3	6	3	439 (0.0)	223,505 (19.0)	75,882 (7.4)
숙박 및 음식점업	3	3	5	18,903 (1.3)	19,971 (1.7)	48,466 (4.7)
정보통신업	11	11	22	70,358 (4.8)	36,526 (3.1)	28,568 (2.8)
금융 및 보험업	3	7	18	167,164 (11.5)	52,224 (4.4)	342,225 (33.5)
부동산업	0	3	2	15,999 (1.1)	146,000 (12.4)	118,168 (1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4	8	4,603 (0.3)	8,363 (0.7)	25,107 (2.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4	4	5,808 (0.4)	5,755 (0.5)	7,191 (0.7)
교육 서비스업	0	1	1	0 (0.0)	714 (0.1)	4,693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1	0 (0.0)	0 (0.0)	551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1	500 (0.0)	1,500 (0.1)	1,000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2	0	0 (0.0)	74 (0.0)	272 (0.0)
기타	0	0	1	0 (0.0)	0 (0.0)	55 (0.0)
총계	69	70	100	1,458,230 (100.0)	1,175,314 (100.0)	1,021,873 (100.0)

주: ()는 시장점유율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투자진출 유망산업

○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도약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중
- 스마트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싱가포르 통화청 내 핀테크 전담조직 운영 및 다국적 금융·IT 기업 이노베이션센터 22개소 운영 중
 -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5년 8월 Fintech & Innovation Group(FTIG) 개설. 금융 정책 개선 및 개발 장려 기능 수행
 - * 핀테크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 비중은 독일 70%, 싱가포르 62%, 미국 53%, 한국 14%(PwC 글로벌 핀테크 서베이 2017)
- 싱가포르의 혁신과 협력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기업과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 2016년부터 'Singapore FinTech Festival'을 개최 중
 - * KOTRA는 2017년부터 Singapore FinTech Festival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여 중
- 금융위원회와 싱가포르 통화청은 2018년 7월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인가절차(Referral Mechanism)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자리잡은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부터 'The Biomedical Science Initiatives*'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에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폴리스(Biopolis)를 개장함. 바이오폴리스 외에도 바이오메디컬 산업 제조를 위해 Tuas 지역에 183ha 규모의 Tuas Biomedical Park I과, 188ha 규모의 Tuas Biomedical Park II를 개장하였으며 현재 세계 매출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 4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생산 중
 - * (1차) 2000~2005년 : 제약, 생명기술, 의료기술, 헬스케어 등 4대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 바이오 메디컬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초석 마련
 - * (2차) 2006~2010년 : 기초연구와 더불어 교차연구, 임상연구 등의 연구능력 강화
 - * (3차) 2011년~ : 성장 잠재력이 큰 핵심 산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상호간 융합
- 2016년에는 싱가포르 R&D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실 산하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서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RIE) 2020 계획을 발표하고, '헬스케어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꼽음. 싱가포르는 정부는 향후 5년간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헬스케어 및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

[싱가포르 내 주요 바이오메디컬 단지]



자료원: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Singapore)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스타트업 분야 협력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싱가포르에 공유 오피스 형태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며,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춰 스타트업이 해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력분야 확대 예정
 - 현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벤처캐피탈(VC) 연결 지원 등
- 2018년 한-싱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우리나라(한국벤처투자)와 싱가포르 간 공동펀드 조성 예정
 - * 주요 투자대상: 싱가포르에 진출하거나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려는 싱가포르 기업

□ 핀테크 산업 협력 강화

- 한국 금융위원회와 싱가포르 통화청은 2018년 7월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인가절차(Referral Mechanism) 지원 등 한-싱 핀테크 기업 간 상호 교류 및 소통 증대,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중
 - 스마트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싱가포르 통화청 내 핀테크 전담조직(FTIG) 운영 및 싱가포르 내 다국적 금융·IT 기업 이노베이션센터 22개소 운영 중
 - * MAS는 2015년 8월 Fintech & Innovation Group(FTIG) 개설. 금융정책 개선 및 개발 장려 기능 수행

□ 스마트시티 공동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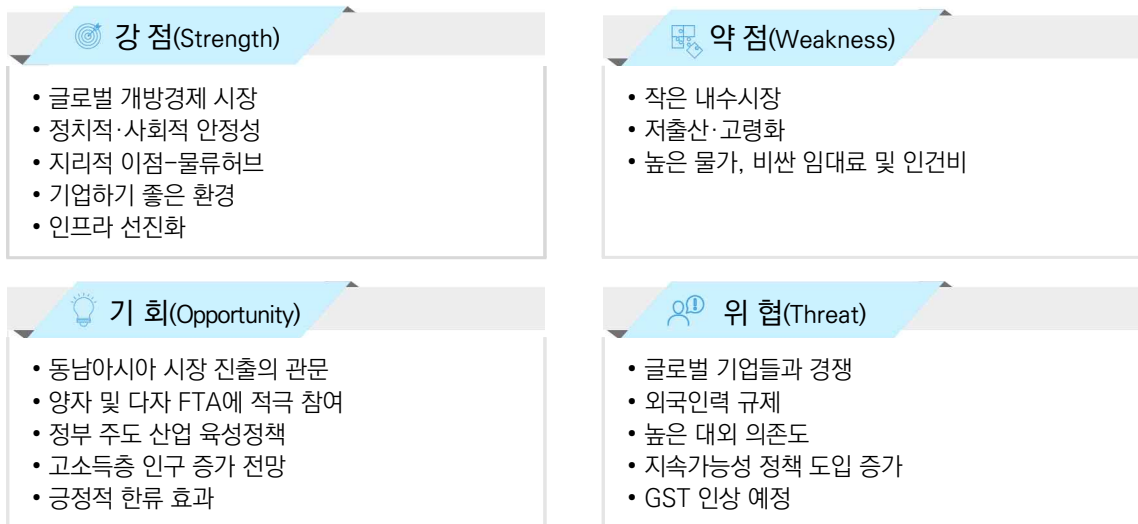
- 한-싱 스마트시티 협력 성공사례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방안 모색
 - 싱가포르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 기술력 및 해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 진출 추진
 -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건설, ICT 기술 등 하드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면 ASEAN, 인도 등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
 - * KOTRA-Enterprise Singapore, 한-싱 정상 임석하에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2018년 7월)
 - * ESG 사절단 방한(10월) → 한-싱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11월) → Smart City Showcase 참가(11월)

III 진출전략

-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허브로 부상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임.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 높은 물가, 치열한 경쟁, 인력관리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싱가포르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혁신기술 보유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나, 투자가 모색 및 지원정책 적극 활용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활용
ST 전략 (강점 활용)	•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바,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 모색	현지 네트워크 구축
WO 전략 (기회 포착)	•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ICT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 주력 중 •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도 증가 중	ICT 솔루션 시장 공략
WT 전략 (위험 대응)	•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 합의를 찾기 쉽지 않은 MOQ 조건에 구매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진출	온라인 플랫폼 활용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저설탕 음료로 싱가포르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 정부가 '당뇨병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소프트드링크 소비를 줄이고 대신 물을 마실 것을 장려하면서 싱가포르 포장음료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실제로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물과 에너지드링크 외 모든 카테고리의 매출이 줄어들음
- *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왔던 싱가포르 포장음료 시장은 2017년 6.0% 수축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설탕세 도입 고려 중인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2016년 '당뇨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싱가포르 보건부가 포장음료 제품에 설탕세 부과, 광고 제한, 설탕 또는 영양성분 관련 제품 라벨 규정 개정 등의 규제 조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싱가포르 주요 음료기업들은 설탕 함유량을 12% 이하로 낮추기로 자발적으로 약속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건강식품 인증제도 활용
 - 싱가포르 건강진흥청(HPB)은 2001년 건강식품 인증인 Healthier Choice Symbol(HCS)을 도입함. 싱가포르 보건부에 의하면 HCS를 부착한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15%에서 2016년 18%로 증가했으며, HCS 미부착 제품들은 매출이 연평균 2~3% 증가한 것에 반해 HCS 부착 제품들은 연평균 9%씩 성장함
 - 우리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HCS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이를 충족할 경우 바이어와 거래 진행 시 영양소 분석 보고서와 함께 이를 어필하면 좋은 셀링포인트(selling point)가 될 것으로 보임

나. 다양한 ICT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싱가포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비전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미디어 개발계획 2025’을 세워 ICT 역량 강화 주력 중
- * 세계경제포럼(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18」 국가경쟁력 세계 3위, 기술수용성 세계 14위(한국: 국가경쟁력 26위, 기술수용성 29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마트네이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보통신기술 도입 프로젝트
 - 2017년 5월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 정부 비전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정부 그룹(SNDGG)’을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신설
 -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계획 ‘Digital Government Blueprint’ 발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 및 품질 개선을 이끌어나가고자 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부 조달 프로젝트 주시
 -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 발표 후 ICT 프로젝트에 매년 약 25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2016년까지는 ICT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2017년부터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등의 비중이 커지는 양상을 보임
 - 특히 최근 사이버 보안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투자 확대 중
 - * 2018년 9월 싱가포르는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센터(Asean-Singapore Cybersecurity Centre of Excellence)’를 개설해 향후 5년간 3천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힘

다.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파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방출량 1톤당 10~20싱가포르달러 탄소세 부과 예정
- 제품 포장재 관련 의무 보고 체계 2020년부터 시행 예정
- 싱가포르 건설청(BCA),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Green Mark for Super Low Energy’ 런칭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도입 활발
 - 2018년 7월 Masagos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제품 포장재 관련 의무 보고체계 도입을 기존 예정이었던 2021년에서 1년 앞당겨 2020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함. 이에 2020년 말까지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포장재 종류, 사용량 및 포장폐기물 감축 계획안이 포함된 연간 보고서를 싱가포르 환경청(NEA)에 제출해야 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절전·절수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대 전망
 - 2018년 9월 싱가포르 건설청은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Green Mark for Super Low Energy'를 런칭함. 건물 내 일사차폐(solar shading), 자연환기, 재생에너지 패널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을 늘리고자 함
 - * JTC공사,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전국 송전선망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SolarRoof 모델 2018년 7월 24일 개시. JTC공사는 20개 이상의 건물 지붕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패널을 통해 생산되는 태양 에너지를 2019년까지 모두 전국 송전선망에 연결할 계획임

라. 성숙기 한류 활용 온라인 소비재 시장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최근 유아용품,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반에 걸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싱가포르는 중국계(74%), 말레이계(14%), 인도계(9%) 등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국가로 소비재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적격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거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시장 점유율 경쟁 치열
 - Qoo10, Lazada, Shopee 등 아세안 소비재 시장을 겨냥한 싱가포르 거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유망 소비재 제품을 입점시키기 위한 셀러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
 - * Qoo10 : 2018년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점유율 1위, Lazada : 2017년 동남아 지역 검색 1위, Shopee : 2018년 동남아 지역 모바일 쇼핑앱 다운로드 수 1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해외시장 진출, 인지도 쌓기
- 한류를 활용한 화장품, 패션용품, 식품 진출이 용이. 그 외 온라인 유통망의 PB 상품 확대를 고려, 생활필수품 등도 진출 가능성이 높음

마. 친환경 선박기자재 수요 증대 대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 항은 전 세계 최대 환적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다국적 선사, ship 매니지먼트사, 기자재 중개업체 등 조선해양 산업군 관련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상주
- 2014년 국제 오일가격 하락과 조선해양플랜트 발주 급감 이후 업계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환경 관련 선박규제에 따른 친환경 조선기자재에 대한 새로운 시장 부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IMO의 해양환경규제 강화 및 의무화 시점 근접
 - 2020년까지 선박 배출 오염물질(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폭 감소 및 모든 선박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2024년까지 설치 의무화
- 글로벌 조선해양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 정책
 - 2018년 초 해상 운송업 ITM(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발표하고 조선해양 및 해운산업 관련 다국적기업 대거 유치를 통한 Maritime Belt 구축 및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방안 제시
 - 그 외,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용 LNG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규모 LNG 터미널을 건설하여 일부 가동 중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기자재 수요 증가 기대
 - 특히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와 배기가스 저감장치(Scrubber)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LNG 선박기자재 등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이 우수한 분야에서 선별과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점

3.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추진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의 지리적 한계여건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2년 말레이시아와 물 협정을 체결하고 원수(raw water)를 수입하여 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에 싱가포르는 재생수 생산시설, 담수화 시설 등 대규모 수처리 시설 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불안정한 말레이시아 수입수(imported water)
 - 말레이시아와 물 협정은 2061년 만료 예정이며, 최근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원수 가격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싱가포르는 물 자급력을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규모 폐수정화 및 재활용 프로젝트 진행 중
 - 폐수를 효과적으로 정화하여 플랜트용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순환구조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Tuas Nexus 프로젝트*는 2019년도 착수하여 2023년 완공 예정
 - *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의 물 재생시설(Tuas Water Reclamation Plant, TWRP)과 환경청의 폐기물 처리시설(Integrated Waste Management Facility, IWMF) 함께 개발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절수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전망
 - 절수제품, 빗물집수장치 등 물 절약방안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 PUB는 물 효율성 라벨링 제도(Water Efficiency Labelling Scheme, WELS)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준강화 및 강제인증 적용대상 확대를 진행하고 있음

나. 스마트시티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6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약 478조 원이며, 2022년까지 약 2.8배인 1,352조 원으로 성장 예상
 - * 도시개발 사업수주는 인프라, 환경, 기술, 상품까지 판매 가능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사업
- 한-싱 스마트시티 협력 성공사례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방안 모색 필요
 - *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건설, ICT 등 하드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면 스마트시티 분야 주도가 기대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32차 아세안정상회담(2018. 4. 26,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내 26개 도시가 참여하는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ASEAN Smart Cities Network, ASCN)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싱가포르는 ASCN을 2018년 11월 ASEAN 정상회담에서 공식 출범
 - * ASCN 발표 후 설문조사에서 아세안 국가가 협력하고 싶은 파트너 1순위로 한국을 뽑아, 국가별 2개 기관이 참여 가능한 2018년 5월 세미나에 국토부와 무역관이 참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부가 추진하는 ICT 프로젝트 관련 조달사업 참여 필요
 - 싱가포르는 2022년까지 5대 추진 프로젝트를 연도별로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ICT 데이터 분석·사이버 보안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중
 - * 디지털 신분확인(National digital Identity), 모바일 결제(E-Payment), 센서 플랫폼(SNSP), 도심 이동성(Urban Mobility), 삶의 순간(Moments of Life) 제고 등

다. 스타트업 및 핀테크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훌륭한 비즈니스 환경 및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허브
 - * 저렴한 법인세(17%), 스타트업 인재 1위 국가, 전 세계 4위 지식재산권 보호국
 - *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등 동남아 대상 VC 싱가포르에 밀집
-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최적의 테스트시장이자 런칭패드
 - * 싱가포르 통화청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FinTech Regulatory Sandbox 운영 중
 - * 세계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싱가포르와 핀란드 단 두 곳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4년 ‘스마트네이션’을 비전으로 선포하여, IC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
 - 핀테크, 보안,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등 연관산업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다국적기업 이노베이션 센터와 협업을 통해 엑셀러레이션, 기술이전, 투자 등 협업 필요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유기능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168	대한수입액('17/US\$백만)	142
	선정사유	한류의 인기로 한국 스타들의 스킨케어·화장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Beauty는 싱가포르의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음		
	시장동향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천연·유기능 소재로 만든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음		
	경쟁동향	싱가포르 화장품 수입대상국 중 프랑스는 약 40%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일본이 2위와 3위를 차지		
유아식 	HS Code	21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2	대한수입액('17/US\$백만)	0.5
	선정사유	싱가포르 이유식 시장은 프리미엄화와 함께 연평균 1.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한국으로부터 수입규모가 지난 3년 평균 19.10%의 증가율을 보이며, 싱가포르 대표 식품점 전문 온라인몰에도 한국 브랜드가 입점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Ex. RedMart)		
	경쟁동향	말레이시아(34.34%)와 일본(21.42%)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즉석조리식품 	HS Code	1902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84	대한수입액('17/US\$백만)	11
	선정사유	한류열풍과 동시에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맛과 다양한 제품군의 라면 등 한국 즉석식품 인기 상승		
	시장동향	수입국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4.26% 상승한 12.6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경쟁동향	자국 브랜드,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며, 한국제품의 경우 한인 마트뿐만 아니라 로컬마켓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함		
애완사료 	HS Code	230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0	대한수입액('17/US\$백만)	0.3
	선정사유	싱가포르는 반려동물 개체 수가 80만 마리로 파악되며,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옴. 애완동물 시장은 2018년 대비 2023년까지 12.6% 성장 전망		
	시장동향	싱가포르 애완동물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억 달러로 지난 3년간 평균 3.7% 성장하였으며, 2023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Mars Food, Hill's Pet Nutrition, Nestle 등 유명 글로벌 기업 제품이 전체 사료시장의 약 37%를 차지		

	진출방안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기농 사료, 기타 애완동물 케어제품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 공략. 단, 싱가포르는 한국으로부터 육류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육류 포함 사료는 싱가포르 수출이 어려움		
소형 가전기기 	HS Code	850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62	대한수입액('17/US\$백만)	2
	선정사유	LG, 삼성과 같은 대기업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한국산 소형 가전기기에 관심 증가세		
	시장동향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강세임에 따라 다기능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슬로우 주서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 상승세		
	경쟁동향	유럽산 브랜드가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으며(26%) 일본(11%), 싱가포르 자국 브랜드(7%) 등이 그 뒤를 이음		
	진방안	유럽산 프리미엄 브랜드와 중국산 저가 브랜드 사이 틈새시장을 공략.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 및 한국의 우수한 디자인을 장점으로 어필		

 (SW) 사이버 보안 솔루션	선정사유	정부 차원의 전문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기회 창출이 되고 있음
	시장동향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 해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 공공·민간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주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이 치열함
	진출방안	싱가포르 주관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Cyber Security Challenge Singapore) 및 국제대회 출전 경험 등 레퍼런스를 쌓는 것이 유리
 (교육) 유아교육	선정사유	수학, 과학 등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한국 학생들로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대
	시장동향	싱가포르 3대 장기 이슈로 2022년까지 유아교육 부문 정부 예산이 약 2배인 17억 싱가포르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시설 증설 및 교육수준 역시 개선될 예정
	경쟁동향	특정 과목 전문의 소규모 학원이 대부분이며 몬테소리, 가베, 구몬 등의 교육기관이 진출하며 꾸준히 수요 증가
	진출방안	글로벌 교육기관과 다르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부각시켜야 하며, 학부모에게 신뢰감 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금융) 핀테크	선정사유	싱가포르 정부의 스마트네이션 정책 이행에 따라 핀테크 육성에 대한 투자 및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3천여개의 금융기업이 밀집한 금융허브이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국제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중
	경쟁동향	글로벌 금융기업 및 관련 스타트업들이 진출하여 경쟁 치열
	진출방안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 협력 및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장 진입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웨딩서비스	선정사유	최근 몇 년간 한류 열풍으로 드라마 장면에서 나왔거나 실제 한류 스타들이 한 웨딩 등을 동경하면서 한국 스타일의 웨딩메이크업, 웨딩드레스, 웨딩 스튜디오 등이 생겨나고 있음
	시장동향	싱가포르 내 특급 호텔에서 웨딩업체들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 스타일을 테마로 웨딩페어를 개최하고 있음. 또한 웨딩스튜디오도 한국 스타일로 촬영하는 것이 더 고가임에도 세련된 퀄리티로 인하여 수요가 늘고 있음
	경쟁동향	싱가포르 내 웨딩 부티크숍을 중심으로 이미 수많은 웨딩스튜디오 업체들이 진출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진출방안	진출 시 별다른 제도적 어려움은 없으나, 진출하고자하는 웨딩서비스 업체만의 특별한 점을 강조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1. 수출 지원 사업

□ 4차 산업혁명 연관 분야 해외진출 지원

- ConnectTechAsia 2019 한국관 지원을 통해 국내 ICT 기업 진출지원(6월)
 - 시기/장소 : 2019년 6월 18~20일/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 Suntec
 - 주요 내용 : 동남아 최대 ICT 전시회인 ConnectTechAsia 한국관 구축 및 바이어 유치 지원을 통해 IoT,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30여개사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기대성과 : 업계 동향 분석 및 잠재 바이어 및 파트너사 발굴 가능

□ 싱가포르 거점 온라인 유통망과의 협력 강화

-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과의 온·오프라인 국내제품 소싱 행사 개최(2/4분기)
 - 주요 내용 : Qoo10, Lazada, Shopee 등 역내 전자상거래시장 선두 플랫폼들의 거점인 싱가포르의 장점을 활용, 국내 제품 소싱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기대성과 : 내수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판로 확보 및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인근 동남아 시장 동반 진출

2. 투자 진출 지원 사업

□ 동남아 스타트업 런치패드, 싱가포르 진출 지원

- 싱가포르 핀테크 전시회, Singapore Fintech Festival 참가(11월)
 - 시기/장소 : 2019년 11월/Singapore Expo
 -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약 15개사 참가지원
 -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 방문, 바이어 및 투자가 상담지원, 피칭 기회 제공

3. 인력 진출 지원 사업

□ 우리 청년들의 싱가포르 취업 지원

- 싱가포르 한인청년 취업설명회 개최(4월)
 - 시기/장소 : 2019년 4월/싱가포르
 - 주요 내용 : 분야별 취업 선배를 초청하여 직종별 취업 노하우, 면접·이력서 작성법 등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해외취업 정보 전달
- 싱가포르 취업박람회, Singapore JobFair 개최(7월)
 - 시기/장소 : 2019년 7월/싱가포르
 - 예상규모 : 글로벌 기업 및 진출기업 20개사, 구직자 100여명
 - 주요 내용 :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및 싱가포르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모집하여 구인기업-구직자 간 1:1 채용면접, 화상면접, 컨설팅 등 진행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탄소세 도입	2019년 1월 1일	
2019/2020년도 예산안 발표	2019년 2월 예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9년 발효 전망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2019년 협상완료 및 체결 전망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ConnecTech Asia 2019	2019년 6월 18~20일	KOTRA 한국관 예정
Echelon Asia Summit 2019	2019년 6월 예정	스타트업
Singapore FinTech Festival	2019년 11월 예정	KOTRA 한국관 예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2019년 협상완료 및 체결 전망	

담당자

싱가포르 무역관 이효봉
Tel +65-6426-7204

직책 과장
Email hblee@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